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2일 월요일 음 12월 15일 (7물)

기상정보

3-8℃
파고 1.5-2.5m
파고 1.5-3.5m
파고 1.0-3.5m
파고 0.5-2.5m
3-10℃
2-7℃
5-8℃

3-8℃
파고 1.5-2.5m
파고 1.0-3.5m
파고 0.5-2.5m
3-10℃
2-7℃
5-8℃

해돋이 07:30
해질 18:06
달돋이 18:29
달질 07:44

물때
만조 11:23
23:09
간조 04:59
17:50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오전
60%
60%
60%
60%

강수 확률
제 주
성 산
고 산
서귀포

오후
60%
30%
60%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12℃

모레
구름많음
3/13℃

월드뉴스

엡스타인 파일에 앤드루 전 왕자... 英 ‘발각’

스타머 “美 의회에서 증언해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가 바다에 누운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대는 사진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1일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추가로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에는 앤드루 전 왕자가 실내 바다에 누워있는 한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 포함됐다.

한 사진에서 앤드루는 바다에 누워있는 이 여성의 배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이었고, 다른 사진들에서는 누운 여성의 양옆에 팔을 짚고서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여성의 옆구리에 손을 올린 채 여성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앤드루 전 영국 왕자.

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스타머 총리는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앤드루 전 왕자가 엡스타인의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미 의회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요청받는 어떤 형태로든 그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감귤 신제품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히라베니

농장 임대만료로 특별 분양
유라조생, 레드향, 카라향
(3년생 분양 10,000원 100% 이식묘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명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감귤묘목·포드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드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례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품종
우량묘
포드묘

제18-서귀포-2019-20-03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국내육성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완료

다양한 년수 포드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굴, 유라조생, 레몬.

신품종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530
(사무실)

주문전화
010.3696.1614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백록담



오은지
경제부동산부장

지난해 제주 기업 현장에 맴돌던 ‘찬바람’은 새해에도 쉽게 찾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내수 부진에 대한 체감이 이어지는 데다 자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회복의 발걸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2026년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서 이같은 분위기가 읽힌다. 조사 대상 업체들이 꼽은 최대 경영 애로 사항은 ‘내수 부진’ (31.6%)이었고, ‘자금 부족’ (15.3%)이 뒤를 이었다. ‘내수 부진’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목된 1순위 경영 애로 사

새해 제주 경제의 출발선에서

향으로, 구조적 제약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체감 경기는 연초부터 주춤했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0으로 전월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 CBSI(94.9)는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선(100)을 넘지 못했고, 비제조업 CBSI(90.8)는 더 낮아졌다. 업종별로 온도 차는 있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며 ‘비관적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1월 소비자심리지수(107.1)가 전월 대비 상승해 기준선(100)을 웃돌며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주책 경기도 반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제주지역 지수는 62.5로, 전월보다 1.7p 하락하며 다시 꺾였다. 여전히 기준선

(100)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하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주택시장 소비심리도 전월 대비 둔화 흐름을 보였다.

기업경기전망도 밝지 않다.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8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말 발표한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4에 그쳤다. 기준치(100)에 한참 못미치며 제조업 체감경기 둔화를 시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매출,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 사정 등 주요 항목 전망치가 모두 기준선을 하회했다.

채용 시장 전망도 옹졸스러웠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도내 중소기업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초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인력채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력 채용계획에 대해 42.2%가 “없다”, 38.2%는 “미정 또는 유동적”이라고 응답했다. 10곳 중 8곳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확정하지 못한 셈이다. 인건비 부담과 적합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 경영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경기 둔화와 경영 여건 악화 속 올 상반기 도내 중소기업의 채용 여건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새해 경제의 출발선에도 ‘여전히’라는 표현이 따라붙는다. 일부 지표에서 개선의 신호가 포착되더라도, 체감으로 이어지기까지 간극이 남아 있다. 이를 좁히기 위해 내수·자금·고용 흐름 전반에서 막히는 지점을 세밀하게 짚어내고, 정책이 현장에 닿아 효과로 연결되도록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열린마당

설 명절, 전통시장의 따뜻함을 지키는 화재예방 기후변화 최전선 제주농업 작물 전환 과제로



문원철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장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은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띤다.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손길과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시장 곳곳에 퍼진다. 그러나 이 따뜻한 풍경 뒤에는 항상 화재라는 위험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전기설비와 복잡하게 얽힌 점포 구조, 다량의 가연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고, 임시 전기배선이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작은 부

주의 하나가 상인들의 생계는 물론 방문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화재 예방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업 종료 후 전기와 가스 차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전원을 뽑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점포 주변 소화기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제주소방서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 없이는 화재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안전한 전통시장은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올 설 명절, 따뜻한 마음과 함께 화재 예방 수칙도 꼭 챙겨주시길 바란다. 작은 관심이 모여 큰 안전이 되고, 그 안전이 모여 모두가 웃는 명절이 될 것이다.



양경선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제주 농업은 지금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있다. 평균기온 상승, 강수 패턴 변화, 잦아진 이상기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제주 농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감귤 산업은 고온에 따른 착색 불량, 당도 저하, 병해충 증가 등으로 구조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부 농가들 중심으로 작물 다양화와 전환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감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아열대·난지형 작물, 특용작물, 시설 원예 등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다. 올리브, 망고, 패션후르츠와 같은 작목은 기

후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이자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작물 전환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초기 투자 부담, 재배 기술 부족, 판로 불확실성은 농가가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이다. 따라서 작물 다양화를 개인의 결단에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 지역별 기후 데이터에 기반한 작목 적합성 분석, 시범재배 확대, 기술 교육과 유통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농정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제주 농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켜내는 농업’을 넘어 ‘적응하고 전환하는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후는 바꿀 수 없지만, 농업의 방식은 바꿀 수 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20년 뒤 제주 농업의 모습이 될 것이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정과 현장의 노력이 맞물릴 때, 제주 농업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